

# “연회비 돌려드려요”... 카드사, 연초 신규고객 확보 경쟁

신한카드, 연회비 100% 캐시백  
최초신규·탈퇴후 6개월 고객 대상  
국민·비씨카드도 연회비 돌려줘  
현대카드, 멤버십 보상 추가 제공

연초부터 신규고객 확보를 위한카드업계의 영업 경쟁이 치열하다. 신규회원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연회비를 100% 돌려주거나 추가 캐시백을 지급하는 등 신용카드 무료이용 혜택을 전면으로 내걸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신한카드는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연회비 100%를 캐시백한다. 행사 대상 신용카드는 총 32종으로 최대 5만원까지 돌려준다. 가입 대상은 최초 신규고객과 탈퇴 후 6개월 경과 고객이다.

KB국민카드와 비씨카드도 연회비의 100%를 돌려준다. KB국민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28종에 한정해 연회비를 전부 캐시백한다. 부가서비스 및 선택적 항목에 동의하고 KB페이에 카드를



Chat GPT가 생성한 '온라인 신용카드 가입' 이미지.

등록하면 된다. 이어 비씨카드는 바로 카드와 K-패스 카드 연회비를 100% 환급기로 결정했다.

현대카드는 프리미엄카드 영업에 공을 들인다. 연회비 환급에 바우처혜택까지 마련했다. 이달 '현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에디션2'를 발급하면 연회비에 멤버십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대 아멕스 그린카드 에디션2의 경우 연회비 15만원을 모두 환급하며 플래티넘 카드는 총 40만원을 적립해

준다. 이 밖에도 롯데카드는 연회비 2만원 짜리 카드에 10만원 캐시백 혜택을 담았다. 추가로 내년 연회비도 면제한다. 연간 '로카 나누기' 카드로 600만원 이상 사용하면 된다. 우리카드는 카드의 정석 3종 신규 고객이 우리원페이로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8만원 캐시백 혜택을 준다. 자동납부·정기결제에 등록하면 최대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카드사가 일괄적으로 연회비 무료 혜

택을 내세운 것은 이례적이다.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회원 유치 경쟁과 함께 영업 분야에 체질개선이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했다. 카드모집인을 통한 회원 확보 비중을 낮추면서 비용 효율화에 나선 것이다. 통상 카드모집인이 신규 고객을 유치할 때 카드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장당 10만~15만원 수준이다. 카드사는 모집인 수당을 소비자 혜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카드 모집인 채용 여건도 녹록지 않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말 전국의 카드모집인은 9217명이다. 전년 대비 2165명 줄면서 1만명선이 붕괴됐다. 이후 ▲2021년(8145명) ▲2022년(7678명) ▲2023년(5581명) ▲2024년(4033명) 순으로 감소세다. 온라인을 통한 영업력 강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이 제2의 '카드대란'을 일으킬 수 있다 우려다. 지난 2002년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다수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만큼 경쟁 과열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 만큼 소비자 선택의 영역이란 입장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경우 연회비 100%의 경제적 이익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카드대란 사태 이후 카드업계는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등 부실 예방책을 마련했다. 애당초 무분별한 카드발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지난해 역대급 연회비 이익을 거둔 만큼 관련 영역에서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연회비 수익은 1조756억원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카드사들이 프리미엄카드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전반적인 연회비 수익이 상승했다"며 "올해는 신규회원 모집에 초점을 맞추고 충성고객 확보에 집중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지방 건설사 유동성 위기 신호탄 우려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후폭풍  
미분양에 중소형사 부도 위험 심화  
정부, 시장 부양 조치 효과도 미지수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후폭풍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동아건설과 같이 부채비율이 높고 미분양에 노출된 지방 중소형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위기의 신호탄일 수 있어서다.

관건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여부와 속도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13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주택사업부문의 경우 7개 사업장에서 2899가구 규모의 공사를 진행 중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액은 총 1조1695억원으로 파악됐다.

신동아건설은 2024년 시공능력평가에서 58위에 오른 중견 건설사다. 지난 2019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에도 미분양 적체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경영난에 직면했다. 지난해 12월 말 만기가 돌아온 60억원의 어음을 지급하지 못했

고, 지난 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일단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은 제한적이다. 태영건설과 달리 금융권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크지 않다.

전매승 LS투자증권 연구원은 "신동아건설의 매출규모와 금융여건을 감안할 때 PF 리스크 관련 금융시장과 금융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하락 기조와 맞물려 유동성·신용위험이 안정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잔여부실 처리로 인한 제2금융권의 손실부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규모는 아니다.

2024년 9월말 기준 제2금융권의 신동아건설 관련 익스포저는 총 1202억원 안팎이다. 캐피탈과 부동산신탁이 각각 573억원, 533억원이며, 증권 53억원, 저축은행 43억원 등이다. 자기자본 대비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하며, 부동산신탁의 경우 해당 사업장은 이미 완공되어 실질적 리스크는 없는 곳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소형 건설사들의 부도 위험은 올해 더 심화될 수 있다. 미분양이 쌓이

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이 신동아건설과 다르지 않다. 작년 부도가 난 건설업체 29곳 가운데 25개가 지방 건설사였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올해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화되는만큼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5% 이하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1월 기준 1만8644호다. 작년 초 1만857호에서 늘면서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이 1만4802호로 80%를 차지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중견 건설사의 기업회생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산업과 부동산업황에 대한 추가적인 저하위험이 존재한다"며 "신동아건설을 포함한 건설 산업의 위험 변동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회사별 위험 대응능력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 GTX 개통에 운정중앙역 인근 호가 상승

운정중앙~서울역구간 운행 시작  
대단지 힐·푸·아 방문자수 3배 ↑  
매매 문의 대비 거래는 많지 않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인 '운정중앙~서울역'구간이 지난달 28일 운행을 시작하면서 운정중앙역 인근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아파트의 호가도 올랐지만 아직까지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아 수요자와 공급자 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운정중앙역 인근 랜드마크 대단지인 '힐·푸·아' (힐스테이트운정,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운정신도시아이파크)의 12월 4주차 방문자 수(2만 8100명)는 전 주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해당 단지에 대한 언급도 늘었다. 개통일 이후 1월 8일까지 12일 동안 '힐푸아'에 등록된 이야기 수는 281개로 직전 동기간 대비 3배 이상 많아 GTX개통에 따른 수요자들의 기대가 컸다.

다만 매매 문의 대비 거래는 많지 않다. 인근 단지의 최근 월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10월 45건이었던 매매거래량은 11월, 12월 각각 25건에 그쳤다. 가격도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 또는 저층 급매물 위주로 거래됐다. 주변 7개 단지의 12월 평당 매매가격은 2739만원으로 10월 이후 하락세다.

운정중앙역 인근의 공인중개업소 A씨는 파주는 주택공급이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A씨는 "작년에 8600세대가 공급됐고 올해 8500세대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라며 "힐스테이트운정' 등이 3000세대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



GTX-A 운정중앙역 1번 출구. /전지원 기자

했다.

자족기능도 부족하다. A씨는 "옆 동네 일산의 경우 킨텍스, 일산테크노밸리, 한류월드, 방승영상밸리 등으로 인구유입 효과도 있는 반면 파주는 이런 단점이 없다"고 말했다. 단순 베드타운 기능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개통했던 동탄역 역시 인근 단지를 살펴보면 개통(2024년 3월) 이후 일대 단지의 드라마틱한 가격 상승은 없었다. 동탄역롯데캐슬은 지난 2월 중순 전용 102㎡ 기준 22억원에 매매 거래로 화제를 모은 바 있었으나 개통 이후 19억원대로 떨어졌다.

전용 84㎡도 15억원 중반대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매매가다.

교통호재의 경우 타당성 평가, 착공 등 오랜 기간에 걸쳐 프리미엄이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개통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양상은 많지 않겠지만 입지 개선 측면에서 입차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운정중앙역 인근 단지들도 호가 상승세는 뚜렷하다. 전용 59㎡ 기준 5억원 초중반이었던 매물은 최근 5억 후반에서 6억원, 전용 84㎡는 8억원대 매물도 나왔다. 거래가 성사된다면 시세가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전지원 기자 jiw13@

## 구본욱 사장 “변화·혁신 디자인하는 해”

KB손보 2025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은 "2025년을 KB손해보험이 보험시장의 관을 바꾸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손해보험의 스탠다드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디자인하는 해'로 삼겠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지난 10일 KB손해보험 인

재니움 수원(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는 구본욱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및 부사장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3일 KB손보에 따르면 외부 특강으로 시작된 이번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는 2024년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경영전략 방향과 각 부문별 원포인트 전

락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취임 2년차를 맞이한 구본욱 사장은 KB손해보험의 미래 청사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디자인하는 2025년'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6가지 핵심 어젠다로 ▲성공의 도미노 문화 확산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 ▲고객중심경영 실행체계 조기 완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 ▲리더중심 조직문화 변화관리 지속 ▲변화 공감대 형성 및 제도적 장치 보완 등을 제시했다.

/김주형 기자 gh471@